

# 전주 첫 마중길 조성... 시민 참여 잇따라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안춘엽 건설기계협회 전북도회장 등  
시민희망나무 헌수운동 성금 전달  
현재까지 모인 성금 1억6000여만원**

전주시가 전주역 앞 백제대로를 전주의 첫 인상을 바꿀 첫 마중길로 조성하는 가운데, 명품 가로수 조성을 위한 시민들의 헌수 참여가 줄을 잇고 있다.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과 안춘엽 대한건설기계협회 전북도회 회장, 박선이 덕진구청장은 각각 200만원의 전주 첫 마중길 시민희망나무 헌수운동 성금을 기탁했다.

먼저,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첫 마중길 명품가로수 조성을 통해 도심 열섬효과 해소되고,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기를 기원하면서 200만원의 헌수금을 전달했다. 평소 생태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회장은 그 공적을 인정받아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안춘엽 대한건설기계협회 전북도회 회장도 지역발전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헌수금 200만원을 전달하고, 첫 마중길에 소중한 가족나무를 심고 가꾸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첫 마중길 조성사업 담당부서인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단장을 맡았던 박선이 덕진구청장도 구청장 취임과 가족사랑의 의미를 담아 헌수운동에 동참했다.



안춘엽 대한건설기계협회 전북도회 회장은 지역발전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헌수금 200만원을 전달하고, 첫 마중길에 소중한 가족나무를 심고 가꾸기로 했다.

이처럼 시민희망나무 헌수운동 참여가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후원에 참여한 개인과 기업, 단체 등은 모두 83곳, 성금은 총 1억6000여만원에 달한다.

시민희망나무 헌수운동 참여가 늘면서 첫 마중길 조성 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현재 전주 첫 마중길 조성공사는 광장 내 느티나무 200여주 식재와 지하매설물 설치가 완료되고,

광장 바닥 포장을 추진중으로 점점 명품가로수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시는 향후 광장 주요지점에 고목나무를 식재해 시민들에게 안락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등 첫 마중길을 전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할 방침이다.

/김민근 기자



## 완주 화산면, 화산·경천저수지 등산로서 국토대청결운동

완주군 화산면은 화산의 명소인 화산·경천저수지 일원 등산로(갈매봉)에서 화산면 이장협의회 및 면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는 국토대청결 운동으로 지난해부터 국비사업으로 화산·경천저수지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구축된 '저수지 둘레길' 및 등산로의 쓰레기와 영농폐기물 3톤 정도를 수거하였고, 등산로 2km를 정비하여 관광객 맞을 준비를 완료했다.

김현순 화산면장은 "지역 대표들 손으로 쾌적한 관광자원을 정리하며 새봄, 지역소득증진을 바라며, 노력을 기여하는 보람찬 시간이었다며 화산면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화산면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산·경천저수지관광자원화사업'은 지난해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저수지 주변 '갈매길' 탐방로를 구축했고, 향후, 일출도 감상할 수 있는 둘레길 및 관광자원 조성을 위해 올해 4억원, 이후 10년간 국비포함 19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 김제시 교월동,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

김제시 교월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태한)는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통해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추진한다.

교월동은 민간기관과 협업하여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을 발굴해 복지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제로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사각지대에 발굴된 가구는 교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후원금 지원과 난방비, 생필품비 등 최대 50만원 현물지원, 긴급복지지원 등 소득, 재산기준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 동안 복지서비스는 찾아오는 민원인의 신청, 접수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먼저 찾아가 대상자의 복지와 건강을 살피고,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 박승철 헤어스튜디오, "탄핵인용 당일 모든 시술 50% 할인" 내걸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전주시 중노송동 홈플러스 전주완산점 내 위치한 박승철 헤어스튜디오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자 3월 10일 금요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시 모든 시술 50% 할인이라는 종이를 내걸었다.

이날 현재는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민근 기자



## 전주풍남로타리, 완주 소양 경로당에 김치냉장고 기증

전주풍남로타리클럽(회장 윤병목)이 소양면 반곡경로당을 방문해 100만원 상당의 김치냉장고를 기증했다.

이번 기증은 완주군청 직원과 관내 마을을 1대1로 연결, 주민과 행정간 소통시스템인 1마을 담당제와 연계돼 성사되게 됐다.

김치냉장고를 기증 받은 반곡경로당(회장 원경자) 어르신들은 "매일 경로당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김치냉장고가 생겨 싱싱하고 맛있는 김치를 식사 때마다 먹을 수 있게 되어서 고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윤병목 전주풍남로타리클럽 회장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정재운 소양면장은 "아름다운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전주풍남로타리클럽 회원분들에게 감사드리다"며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김제시 금산면, 쌀 직불금 공동접수센터 운영

김제시 금산면은 13일부터 15일까지 직불금 집중 접수기간으로 정하고 김제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면사무소에서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해 직불금 신청과 경정체 등록신청을 접수한다.

집중접수기간에는 직불제 담당자와 농관원 경정체 담당자가 공동으로 접수·검토하여 신청능력이 보다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농가는 오는 4월 29일까지 면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밭농업직불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하여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경주여건이 불리한 지급대상 법정리에 있는 농지 또는 초지를 각각 대상으로 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 격포·고사포해변서 환경정화

국립공원관리공단 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병채)와 정읍준법지원센터가 격포·고사포해변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쳐 변산반도 구구기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8일 국립공원 직원들과 정읍준법지원센터직원들은 봄철 탐방객이 집중 되는 격포·고사포해변 일원에서와 합동으로 '봄맞이 해변 환경정화' 활동을 펼쳐 부표와 스티로폼, 폐 그물, 생활쓰레기 등 약 2에 이르는 쓰레기를 수거 소각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 부안군 행안면 이장단협의회, 봄맞이 환경정화활동

부안군 행안면 이장단협의회와 사회단체 회원들이 봄을 맞아 관내 주요 관광지 일대에 대한 환경정화활동을 벌였다.



이날 환경정화활동은 행안면 이장단협의회(회장 주금철), 남내새마을지도자회(회장 장세준·임복순),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홍우)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석정공원에 버려진 각종 오물 및 생활쓰레기 등 동질기 방지된 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행안면 만들기에 앞장섰다.

환경정화활동 후에는 이장단협의회와 사회단체 회원들이 소·공·동 토론회를 개최해 제5회 부안마실축제 홍보 방안, 인구 늘리기 추진 등 행복하고 살기 좋은 행안면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 김제경찰, 교통사망사고 방지 위한 교통안전시설 점검

김제경찰서(서장 황대규)는 관내 교통사망사고 장소 등을 찾아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점검하여 교통시설 개선 등 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이날 김제경찰서장을 비롯 경비교통과장, 교통관리계장, 용치파출소장 등이 참석하여 교통사망사고와 관련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도로구조상의 문제점 및 재발방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사고발생지점 도로에 있는 운전자 주의 환기를 위한 갈매기표지판 등 설치에 대해 검토했으며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망사고에 대해 교통사고 예방 방안 및 향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고창경찰, 교통사고 예방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고창경찰서(총경 박현수)는 고창관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유관기관 및 협력단체 간담회를 실시했다.

생활안전교통과장 및 고창군청, 모범·녹색 회원 등이 참석, 현재까지 교통사망사고 현황을 분석하고 교통사고 예방대책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도출된 대책을 활용, 사고예방을 위해 적극 추진기로 하였다.

불철 이륜차 및 보행자, 농기계 사망사고 예방과 운전자 상대 음주운전, 신호위반, 안전띠미착용 등 교통3대 반칙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고창 청보리밭 등 각종 축제에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예방 홍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고창=김영서 기자

## 무주경찰, 새학기 맞아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안전활동'

무주경찰서(서장 나영민)는 신학기 개학 날부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 주변 안전활동 등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안전활동'을 지속 전개했다.

이날 활동은 무주중앙초·중학교장·학부모·학교전담 경찰 10여명 등 지역 공동체가 학교 주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 주변 순찰, 학교 밖 등굣길 안전활동 지도 및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진단을 함께 실시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임실경찰, 임실초교 등서 학교폭력 근절 합동 캠페인

임실경찰서(서장 김광호)는, 임실초등학교 등 관내 주요 초·중고에서 학교폭력 근절 합동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김광호 경찰서장, 심민 임실군수, 정녀영 임실교육장, 임실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및 단체 50여명이 참석하여 등교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학용품 등을 나누어주며 신학기를 맞아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의 폐해 및 신고요령 등 홍보하고 근절 분위기 조성에 집중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7년 11월 29일 등록(일간) (주)60912 전주신문(주) 222-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병성 부회장 김승곤 전무 겸 편집국장 김관준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사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088-8874	남원지사 632-3386	고창지사 563-6888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65	김제지사 547-8865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65	진안지사 433-3084
효지지사 010-8945-9335	팔복지사 253-6884	남원지사 632-0885	정읍지사 536-3787
	군산지사 445-0157	순창지사 663-0444	장수지사 010-3882-8157
	익산지사 868-99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광고문의 288-9700